

2023년 6월 24일 시행

법원 9급 공개경쟁채용 제1·2차시험

〈 1교시 〉

문제책형	시험과목	헌법(25문), 국어(25문), 한국사(25문), 영어(25문)
①		

응시자 준수 사항

1. 문제책을 받더라도 시험시작 시간까지 문제내용을 보아서는 안됩니다.
2. 문제책을 받는 즉시 과목편철 순서, 문제누락 여부, 인쇄상태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한 후 답안지의 문제책형란에 본인의 책형을 표기합니다.
3. 문항의 취지에 가장 적합한 하나의 답안만을 선택하여 표기하여야 하며, 문제내용에 관하여 질문할 수 없습니다.
4. 시험시간 종료 후 문제책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 시험시간이 종료되기 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문제책을 시험장 밖으로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공 지 사 항

공개되는 정답가안에 이의가 있는 응시자는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exam.scourt.go.kr>)를 통하여 아래와 같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1. 정답가안 공개 : 2023. 6. 24.(토)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인터넷 홈페이지 / 시험자료실]에 게시

2. 이의제기

기간 : 2023. 6. 26.(월) 12:00 ~ 2023. 6. 28.(수) 17:00

방법 :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인터넷 홈페이지 / 질의응답 / 정답이의제기]에 게시

3. 최종정답 공개 : 2023. 7. 5.(수) 12:00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인터넷 홈페이지 / 시험자료실]에 게시

※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exam.scourt.go.kr>) 정답이의제기 전용게시판 이외의 방법에 의한 이의제기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법 원 행 정 처

【문 1】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례에 의함. 이하[문1~문25]까지 같음)

- ① 절대적 종신형제도는 사형제도와는 또 다른 위헌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현행 형사법령 하에서도 가석방제도의 운영 여하에 따라 사회로부터의 영구적 격리가 가능한 절대적 종신형과 상대적 종신형의 각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행 무기징역형제도가 상대적 종신형 외에 절대적 종신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것이 형벌체계상 정당성과 균형을 상실하여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에 반한다거나 형벌이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도록 비례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책임원칙에 반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② 헌법은 절대적 기본권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비록 생명이 이념적으로 절대적 가치를 지닌 것이라 하더라도 생명에 대한 법적 평가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 ③ 생명권의 경우, 다른 일반적인 기본권 제한의 구조와는 달리, 생명의 일부 박탈이라는 것을 상정할 수 없고 생명권에 대한 제한은 필연적으로 생명권의 완전한 박탈을 의미하게 되기 때문에 생명권의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라 하더라도 생명권의 박탈이 초래된다면 곧바로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 ④ 헌법 제12조 제1항의 신체의 자유는, 신체의 안정성이 외부로부터의 물리적인 힘이나 정신적인 위험으로부터 침해당하지 아니할 자유와 신체활동을 임의적이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디엔에이감식사로 채취의 구체적인 방법은 구강점막 또는 모근을 포함한 모발을 채취하는 방법으로 하고, 위 방법들에 의한 채취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분비물, 체액을 채취하는 방법으로 한다. 그렇다면 디엔에이감식사의 채취행위는 신체의 안정성을 해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다.

【문 2】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헌법 제18조로 보장되는 기본권인 통신의 자유란 통신수단을 자유로이 이용하여 의사소통할 권리이다. ‘통신수단의 자유로운 이용’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인적 사항을 누구에게도 밝히지 않는 상태로 통신수단을 이용할 자유, 즉 통신수단의 익명성 보장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 ②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된다.
- ③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다.
- ④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통신비밀보호법에 근거한 소송절차 이외의 파생적 사항에 관한 법원의 공권적 법률판단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문 3】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또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교도소 등에서 출소한 후 7일 이내에 출소사실을 신고하도록 정한 구 보안관찰법 제6조 제1항 전문 중 출소 후 신고의무에 관한 부분 및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정한 보안관찰법 제27조 제2항 중 구 보안관찰법 제6조 제1항 전문 가운데 출소 후 신고의무에 관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②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본문 중 ‘직계혈족이 제15조에 규정된 증명서 가운데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부분이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가정폭력 피해자인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 ③ 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삭제와 보존기간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법원에서 불처분결정된 소년부송치 사건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은 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및 제3항과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및 제3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 ④ 초상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위 침해는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않는다.

【문 4】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란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이나 구직 중인 사람을 포함하여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사람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② 출입국관리 법령에서 외국인고용제한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하 ‘취업자격’이라고 한다) 없는 외국인의 고용이라는 사실적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자 하는 것뿐이지, 나아가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이 사실상 제공한 근로에 따른 권리나 이미 형성된 근로관계에서 근로자로서의 신분 등에 따른 노동관계법상의 제반 권리 등의 법률효과까지 금지하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 ③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한, 그러한 근로자가 외국인인지 여부나 취업자격의 유무에 따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다.
- ④ 헌법 제15조의 직업의 자유 또는 헌법 제32조의 근로의 권리, 사회국가원리 등에 근거하여 실업방지 및 부당한 해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를 도출할 수 있으므로,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직장존속보장청구권을 근로자에게 인정할 헌법상의 근거가 있다. 따라서 근로관계의 당연성계를 보장하는 입법을 반드시 하여야 할 헌법상의 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

【문 5】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헌법재판소는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도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보고 있다.
- ② 헌법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헌법상의 기본권으로까지 규정하지는 않았으나, 형사소송법은 제161조의2에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포함한 교호신문권을 명문으로 규정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에 대하여 반대신문할 수 있는 권리를 원칙적으로 보장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 제12조 제1항, 제27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구현한 것이다.
- ③ 국가보안법위반죄로 구속기소된 청구인의 변호인이 청구인의 변론준비를 위하여 피청구인인 검사에게 그가 보관중인 수사기록일체에 대한 열람·등사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국가기밀의 누설이나 증거인멸, 증인협박, 사생활침해의 우려 등 정당한 사유를 밝히지 아니한 채 이를 전부 거부한 것은 청구인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
- ④ 상고심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헌법상 명문화한 규정이 없는 이상, 헌법 제27조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모든 사건에 대해 상고심 재판을 받을 권리까지도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모든 사건에 대해 획일적으로 상고할 수 있게 할지 여부는 입법재량의 문제라고 할 것이므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가 소액사건에 대하여 상고의 이유를 제한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문 6】공무원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무원의 기부금모집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조항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직급이나 직무의 성격에 대한 검토 혹은 기부금 상한액을 낮추는 방법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모든 공무원의 기부금 모집을 전면적으로 금지함으로써 과도한 제한을 초래하므로 공무원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 ② 서울교통공사의 상근직원은 서울교통공사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당원이 아닌 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 서울교통공사의 상근직원이 경선운동을 할 수 없도록 일률적으로 금지·처벌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 ③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중 대통령령 등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근로3권을 인정하는 국가공무원법 조항은, 근로3권이 보장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이는 헌법 제33조 제2항에 근거한 것으로, 전체국민의 공공복리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노동조건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입법자에게 허용된 입법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할 수 없다.
- ④ 공무원의 정당가입이 허용된다면,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가 직무 내의 것인지 직무 외의 것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설사 공무원이 근무시간 외에 혹은 직무와 관련 없이 정당과 관련된 정치적 표현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는 유지되기 어렵다.

【문 7】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액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이 절차의 신속성과 경제성에 중점을 두어 규정한 심리절차의 특칙에 따라 소송당사자가 소송절차를 남용할 가능성이 다른 민사사건에 비하여 크다고 할 수 있는바,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법원이 변론 없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한 소액사건심판법 조항은 소액사건에서 남소를 방지하고 이러한 소송을 신속히 종결하고자 필요적 변론 원칙의 예외를 규정한 것이므로 재판청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② 이해관계인에 대한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의 통지는 집행기록에 표시된 이해관계인의 주소에 발송하도록 한 민사집행법 제104조 제3항의 이해관계인 중 ‘민사집행법 제90조 제3호의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에 관한 부분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 ③ 간이기각제도는 형사소송절차의 신속성이라는 공익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고 적절한 방법으로써 즉시항고에 의한 불복도 가능하므로,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기피신청의 경우 그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이 결정으로 기각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 ④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중대한 사실오인 또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를 허용한 형사소송법(1963. 12. 13. 법률 제1500호로 개정된 것) 제383조 제4호는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문 8】입법부작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입법자가 불충분하게 규율한 이른바 부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그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등 헌법위반을 내세워 적극적인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기본권 침해 상태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소정의 청구기간을 준수할 필요는 없다.
- ② 하위 행정입법의 제정 없이 상위 법령의 규정만으로도 법률의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상위 법령이 행정입법에 위임하고 있다면 하위 행정입법을 하여야 할 헌법적 작위의무가 인정된다.
- ③ 법률에서 군법무관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를 법관 및 검사의 예에 준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대통령령을 제정할 것을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군복무를 하고 있는 군장교들은 전투력의 확보를 위한 특수집단의 한 구성요소이므로 군조직 밖의 기준으로 군조직의 다른 요소와 분리시켜 기본적인 보수에 있어 우대적 차별을 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대통령이 지금까지 해당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군법무관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④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유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문 9】영장주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헌법상 영장주의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강제처분에 적용되므로, 강제력이 개입되지 않은 임의수사에 해당하는 수사기관 등의 통신자료 취득에는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 ② 기지국 수사를 허용하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은 법원의 허가에 의해 해당 가입자의 동의나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도 제3자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해당 가입자에 관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수사방법이므로 헌법상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 ③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 내에서 피의자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별도로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구별하지 않고 피의자가 소재할 개연성만 소명되면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헌법 제16조의 영장주의에 위반된다.
- ④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에 대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출입국관리법 조항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출국금지결정은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국민의 출국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처분일 뿐이고, 영장주의가 적용되는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물리적 강제력을 수반하는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문10】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집회는 일정한 장소를 전제로 하여 특정 목적을 가진 다수인이 일시적으로 회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의 다수인이 가지는 공동의 목적은 '내적인 유대 관계'로 족하지 않고 공동의 의사형성과 의사표현이라는 공동의 목적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②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선거기간 중에도 국민들이 제기하는 건전한 비판과 여론 형성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 ③ 국회의장 공관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집회·시위의 참가자를 처벌하는 것은 해당 장소에서 옥외집회·시위가 개최되더라도 국회의장에게 물리적 위해를 가하거나 국회의장 공관으로의 출입 내지 안전에 위협을 가할 우려가 없는 장소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 ④ 사회복무요원이 정당 가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병역법 조항은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회적 활동까지 금지한다는 점에서 사회복무요원의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

【문11】헌법개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현행 대한민국헌법은 1987년 개정에 의한 것이다.
- ②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 ③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④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문12】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은, 누구나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 지을 수 있도록 구성요건이 명확할 것을 의미한다.
- ②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을 일일이 세분하여 명확성의 요건을 모든 경우에 요구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어느 정도 명확하여야 하는가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각 구성요건의 특수성과 그러한 법적 규제의 원인이 된 여건이나 처벌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다소 광범위하고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는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여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적용단계에서 다의적으로 해석될 우려가 없는 이상 그 점만으로 헌법이 요구하는 명확성의 요구에 배치된다고는 보기 어렵다.
- ③ 범죄의 처벌에 관한 문제, 즉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은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이지만,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 ④ 국회의 입법재량 내지 입법정책적 고려에 있어서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입법은 할 수 없으므로,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명시된 죄형법정주의와 소급효의 금지 및 이에 유래하는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외에 지켜져야 할 입법원칙이 있다.

【문13】통신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전기통신역무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가입자에게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등을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부정가입방지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익명으로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여 통신하고자 하는 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
- ② 통신비밀보호법(2005. 5. 26. 법률 제7503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제1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2조 제11호 가목 내지 라목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는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
- ③ 교도소장이 수용자에게 온 서신을 개봉한 행위 및 법원, 검찰청 등이 수용자에게 보낸 문서를 열람한 행위는 수용자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④ A구치소장이 당시 A구치소에 수용 중인 甲 앞으로 온 서신 속에 허가받지 않은 물품인 사진이 동봉되어 있음을 이유로 甲에게 해당 서신수수를 금지하고 해당 서신을 발신자로서 당시 B교도소에 수용 중인 乙에게 반송한 행위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乙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문14】헌법해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헌법의 기본원리는 헌법의 이념적 기초인 동시에 헌법을 지배하는 지도원리로서 입법이나 정책결정의 방향을 제시하며 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국민과 국가기관이 헌법을 존중하고 수호하도록 하는 지침이 되며, 구체적 기본권을 도출하는 근거로 될 수 있다.
- ② 헌법은 전문과 각 개별조항이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하나의 통일된 가치체계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서, 이념적·논리적으로 규범 상호간의 우열을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헌법의 어느 특정규정이 다른 규정의 효력을 전면적으로 부인할 수 있을 정도의 개별적 헌법규정 상호간에 효력상의 차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 ③ 헌법해석은 헌법이 담고 추구하는 이상과 이념에 따른 역사적, 사회적 요구를 올바르게 수용하여 헌법적 방향을 제시하는 헌법의 창조적 기능을 수행하여 국민의 욕구와 의식에 알맞은 실질적 국민주권의 실현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 ④ 헌법재판소가 행하는 구체적 규범통제의 심사기준은 원칙적으로 규범이 제정될 당시의 헌법이 아니라 헌법재판을 할 당시에 규범적 효력을 가지는 헌법이다.

【문15】지방자치단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② 지방자치단체가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에 관하여 자치조례를 제정하는 경우에도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조례를 제정할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위임 없이 제정된 조례는 효력이 없다.
- ③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하도록 규정한 것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이의 상호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비추어 헌법상 권력분립원칙에 위반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미치는 관할구역의 범위에는 육지는 물론 바다도 포함되므로, 공유수면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이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문16】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자녀의 양육과 가족생활을 위하여 필수적인 것이고, 가족생활의 핵심적 요소라 할 수 있으므로,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자유’는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보호받는다.
- ② 이름은 인간의 모든 사회적 생활관계 형성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회질서에 속한다. 이름의 특징은 사회 전체의 법적 안정성의 기초이므로 이를 위해 국가는 개인이 사용하는 이름에 대해 일정한 규율을 가할 수 있다.
- ③ 헌법은 국가사회의 최고규범이므로 가족제도가 비록 역사적, 사회적 산물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헌법의 위로부터 벗어날 수 없으며, 가족법이 헌법이념의 실현에 장애를 초래하고, 헌법규범과 현실과의 괴리를 고착시키는데 일조하고 있다면 그러한 가족법은 수정되어야 한다.
- ④ 헌법재판소는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할 수 없도록 하는 민법 제809조 제1항이 혼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았다.

【문17】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헌법 제23조 제1항의 재산권보장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권은 사적유용성 및 그에 대한 원칙적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가치 있는 구체적 권리이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권리가 아닌, 단순한 이익이나 재화의 획득에 관한 기회 등은 재산권보장의 대상이 아니다.
- ② 우리 헌법의 재산권 보장은 사유재산의 처분과 그 상속을 포함하는 것인바, 유언자가 생전에 최종적으로 자신의 재산권에 대하여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가능성을 의미하는 유언의 자유는 생전증여에 의한 처분과 마찬가지로 헌법상 재산권의 보호를 받는다.
- ③ 헌법재판소는 공법상의 권리가 재산권보장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과 금전적 기여를 통하여 취득되고 자신과 그의 가족의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권리’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상의 연금수급권이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에 포함됨을 밝힌 바 있다.
- ④ 국가는 납세자가 자신과 가족의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위하여 꼭 필요로 하는 소득을 제외한 잉여소득 부분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소득에 대한 과세는 원칙적으로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문18】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치입법권에 근거하여 자주적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한 법규이기 때문에 조례 자체로 인하여 직접 그리고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그 권리구제의 수단으로서 조례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 ② 조례의 제정권자인 지방의회는 선거를 통해서 그 지역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지니고 있는 주민의 대표기관이라 하더라도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있다.
- ③ 법령의 직접적인 위임에 따라 위임행정기관이 그 법령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한 것이라면, 그 제정형식은 비록 법규명령이 아닌 고시, 훈령, 예규 등과 같은 행정규칙이더라도 그것이 상위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서 기능하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 ④ 행정규칙이 재량권행사의 준칙으로서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을 이루게 되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이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게 되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문19】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② 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 ③ 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 ④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문20】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람의 육체적·정신적 상태나 건강에 대한 정보, 성생활에 대한 정보와 같은 것은 인간의 존엄성이나 인격의 내적 핵심을 이루는 요소이다. 따라서 외부세계의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 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공표하는 것이 쉽게 허용되어서는 개인의 내밀한 인격과 자기정체성이 유지될 수 없다.
- ②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보장하고 있다. 헌법 제17조가 보호하고자 하는 기본권은 사생활영역의 자유로운 형성과 비밀유지라고 할 것이다.
- ③ 헌법 제10조는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고,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은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자기운명결정권에는 성행위 여부 및 그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포함되어 있고, 경제적 대가를 매개로 하여 성행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 또한 성적 자기결정권과 관련되어 있다 볼 것이다.
- ④ 4급 이상의 공무원의 경우 모든 질병명을 예외 없이 공개토록 하는 것은 입법목적 실현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공무원들의 헌법 제17조가 보장하는 기본권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문21】직업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라 하더라도 소송계속 사실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수형자와 변호사접견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2 제1항 제2호 중 ‘수형자 접견’에 관한 부분은 변호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 ②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에게 더 이상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구 세무사법 제3조는 시행일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 ③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하도록 하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조항은 노래연습장 운영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 ④ 헌법은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민의 보건에 관한 국가의 의무를 인정하고 있으나, 시·도지사들이 한약업사 시험을 시행하여야 할 헌법상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문22】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근로자의 날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포함시키지 않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본문은 공무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② 공무원연금법에서 유족급여수급권의 대상을 19세 미만의 자녀로 한정하는 것은 19세 이상 자녀들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③ 사법보좌관에게 민사소송법에 따른 독촉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원조직법 제54조 제2항 제1호 중 ‘민사소송법에 따른 독촉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에 관한 부분은 법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 ④ 사법보좌관의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2주 이내로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 중 ‘사법보좌관의 지급명령’에 관한 부분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문23】적법절차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심급제도에 대한 입법재량의 범위와 범죄인인도심사의 법적 성격, 그리고 범죄인인도법에서의 심사절차에 관한 규정 등을 종합할 때, 범죄인인도심사를 서울고등법원의 단심제로 정하고 있는 것은 적법절차원칙에서 요구되는 합리성과 정당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②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과 제3항에 규정된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절차상의 제한된 범위뿐만 아니라 국가작용으로서 모든 입법 및 행정작용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 ③ 검사만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검사에게 치료감호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고만 규정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자의적 행정처분의 가능성을 초래하므로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된다.
- ④ 행정상 즉시강제는 그 본질상 급박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법관의 영장을 기다려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원칙적으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문24】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규정립행위는 그것이 국회입법이든 행정입법이든 막론하고 일종의 법률행위이므로, 그 행위의 속성상 행위 자체는 한번에 끝나는 것이고, 그러한 입법행위의 결과인 권리침해상태가 계속될 수 있을 뿐이다.
- ② 국회부의장이 국회의장의 위임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여 법률안 가결 선포행위를 하였다면, 국회부의장은 법률안 가결 선포행위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는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권한쟁의심판의 피청구인 적격이 인정된다.
- ③ 국회의 동의권이 침해되었다고 하여 동시에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은 국회의 대내적인 관계에서 행사되고 침해될 수 있을 뿐 다른 국가기관과의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침해될 수 없다.
- ④ 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문25】평등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과 달리 공무원의 초임호봉 획정에 인정되는 경력에 산업기능요원의 경력을 제외하도록 한 공무원보수규정은 산업기능요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②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 등이 발생한 경우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 ③ 실업급여에 관한 고용보험법의 적용에 있어 ‘65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자’를 그 적용대상에서 배제한 고용보험법(2013. 6. 4. 법률 제11864호로 개정된 것)은 65세 이후 고용된 사람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④ 공무원의 시간외·야간·휴일근무수당의 산정방법을 정하고 있는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공무원에 대한 수당 지급을 근로기준법보다 불리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공무원과 일반근로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서 평등권을 침해한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문1~문3]

우리는 거짓이 사실을 압도하는 사회에서 살고 있다. 사실에 사회적 맥락이 더해진 진실도 자연스레 설 자리를 잃었다. 2016년에 옥스퍼드 사전은 세계의 단어로 ‘탈진실’을 선정하며 탈진실화가 국지적 현상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시대적 특성이라고 진단했다. 탈진실의 시대가 시작된 것을 반증하기라도 하듯 ‘가짜 뉴스’가 사회적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가짜 뉴스의 정의와 범위에 대해선 의견이 여러 갈래로 나뉜다. 언론사의 오보에서부터 인터넷 루머까지 가짜 뉴스는 넓은 스펙트럼 안에서 혼란스럽게 사용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짜 뉴스의 기준을 정하고 범위를 좁히지 않으면 비생산적인 논란만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2017년 2월 한국언론학회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주최한 세미나에서는 가짜 뉴스를 ‘정치적·경제적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언론 보도의 형식을 하고 유포된 거짓 정보’라고 정의하였다.

가짜 뉴스의 역사는 인류 커뮤니케이션의 역사만큼이나 길다. 백제 무왕이 지은 「서동요」는 선화 공주와 결혼하기 위해 그가 거짓 정보를 노래로 만든 가짜 뉴스였다. 1923년 관동 대지진이 났을 때 일본 내무성이 조선인에 대해 악의적으로 허위 정보를 퍼뜨린 일은 가짜 뉴스가 잔인한 학살로 이어진 사건이다. 이처럼 역사 속에서 늘 반복된 가짜 뉴스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것은 새삼스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최근 일어나는 가짜 뉴스 현상을 돌아보면 이전의 사례와는 확연히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다.

‘21세기형 가짜 뉴스’의 특징은 논란의 중심에 글로벌 IT 기업이 있다는 점이다. 가짜 뉴스는 더 이상 동요나 입소문을 통해 퍼지지 않는다. 누구나 쉽게 이용하는 매체에 ‘정식 기사’의 얼굴을 하고 나타난다. 감쪽같이 변장한 가짜 뉴스들은 대중이 뉴스를 접하는 채널이 신문·방송 같은 전통적 매체에서 포털, SNS 등의 디지털 매체로 옮겨 가면서 쉽게 유통되고 확산된다.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이유는 ‘돈’이다. 뉴스와 관련된 돈은 대부분 광고에서 발생한다. 모든 광고는 광고 중개 서비스를 통하는데, 광고주가 중개 업체에 돈을 지불하면 중개 업체는 금액에 따라 광고를 배치한다. 높은 조회수가 나오는 사이트일수록 높은 금액의 광고를 배치하는 식이다. 뉴스가 범람하는 상황에서 이용자는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다. 그 때문에 눈길을 끄는 뉴스가 잘 팔리는 뉴스가 된다. 가짜 뉴스는 선택받을 수 있는 조건을 정확히 알고 대중을 치밀하게 속인다. 어떤 식으로든 눈에 띄고 선택받아 ‘돈’이 되기 위해 비윤리적이어도 개의치 않고 자극적인 요소들을 자연스럽게 포함한다. 과정이야 어떻든 이윤만 내면 성공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가짜 뉴스는 혐오나 선동과 같은 자극적 요소를 담게 되고, 이렇게 만들어진 가짜 뉴스는 사회 구성원들의 통합을 방해하고 극단주의를 초래한다.

【문 1】㉠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광고주와 중개 업체 사이에 위계 관계가 발생한다.
- ② 소비자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 뉴스를 소비하게 된다.
- ③ 혐오와 선동을 담은 뉴스로 인해 극단주의가 발생한다.
- ④ 소비자가 높은 금액을 주고 읽어야 하는 가짜 뉴스가 생산된다.

【문 2】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짜 뉴스의 기준과 범위를 정하기 어려운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 ② 전문성을 가진 단체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정의한 가짜 뉴스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 ③ 가짜 뉴스가 논란거리로 떠오르게 된 시대의 특성을 제시하고 있다.
- ④ 사용 매체의 변화로 인해 발생한 가짜 뉴스의 특징을 제시하고 있다.

【문 3】윗글을 읽고 나는 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짜 뉴스는 현재에도 입소문을 통해서 주로 전파되고 있어.
- ② 탈진실화는 아직까진 특정 국가에 한정된 일이라고 볼 수 있겠어.
- ③ 과거에 가짜 뉴스로 인해 많은 사람이 실제로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었어.
- ④ 가짜 뉴스 현상은 과거부터 반복되어온 만큼 과거와 현재 서로 다른 점이 존재하지 않아.

【문 4】<보기>의 ㉡과 ㉢을 모두 충족하는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파생어는 어근에 파생접사가 결합하여 만들어진다. 이때 접사가 어근의 앞에 결합하는 경우도 있고, ㉠접사가 어근의 뒤에 결합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어근에 파생접사가 결합하여 새로운 단어가 형성될 때 ㉡어근의 품사가 바뀌는 경우도 있고, 바뀌지 않는 경우도 있다.

- ① 오늘따라 저녁노을이 유난히 새빨갳다.
- ② 아군의 사기를 높여야 승산이 있습니다.
- ③ 무엇보다 그 책은 쉽고 재미있게 읽힌다.
- ④ 나는 천천히 달리기가 더 어렵다.

【문 5】㉣~㉥ 중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보 기 >

높임 표현은 높임의 대상에 따라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객체 높임은 목적어나 부사어가 나타내는 대상, 즉 서술의 객체를 높이는 방법으로 주로 특수 어휘나 부사격 조사 ‘께’에 의해 실현된다.

지우: 민주야, 너 내일 뭐 할 거니?

민주: 응, 내일 할머니 생신이라서 할머니 ㉣모시고 영화관에 가기로 했어.

지우: 와, 오랜만에 할머니도 뵈고 좋겠다.

민주: 응, 그렇지. 오늘은 할머니께 편지도 써야 할 것 같아.

지우: ㉤할머니께 드릴 선물은 샀어?

민주: 응, 안 그래도 할머니가 허리가 아프셔서 엄마가 안마의자를 사서 ㉤드린대. 나는 용돈을 조금 보태기로 했어.

지우: 아, 할머니께서 ㉥편찮으셨구나.

- ① ㉣
- ② ㉤
- ③ ㉥
- ④ ㉦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문6~문8]

(가)

시원한 여름 저녁이었다.

바람이 불고 시커먼 구름 떼가 서편으로 몰려 달리고 있었다. 그 구름이 몰려 쌓이는 먼 서편 하늘 끝에선 이따금 칼날 같은 번갯불이 번쩍이곤 했다. 이편 하늘의 별들은 구름 사이사이에서 이상스레 파랗파랗 빛났다. 달은 구름 더미를 요리조리 헤치고 빠져나왔다가는, 새로 몰려오는 구름 더미에 애처롭게도 휘감기곤 했다. 집집의 지붕들은 깊숙하고도 싸늘한 빛으로 물들고, 대기에는 차가운 물기가 돌았다.

땅 위엔 무언지 불길한 느낌이 들도록 차단한 정적이 흘렀다. 철과 나는 베란다 위에 앉아 있었다. 막연한 원시적인 공포감 같은 소심한 느낌에 사로잡혀 무한정 묵묵히 앉아 있었다. 철은 먼 하늘가에 시선을 준 채 연방 담배를 피웠다. 이렇게 한동안 말없이 앉았다가 철은 문득 다음과 같은 얘기를 들려주었다.

(나)

형은 스물일곱 살이었고 동생은 스물두 살이었다.

형은 **둔감했고 위태위태하도록 솔직했고**, 결국 조금 모자란 사람이었다.

해방 이듬해 삼팔선을 넘어올 때 모두 긴장해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판에 큰 소리로,

“야하, 이기 바루 그 삼팔선이구나이, 야하.”

이래 낚서 일행 모두의 간담을 서늘하게 한 일이 있었다. 아버지는 그때도 형을 쥐어박았고, 형은 엉엉 울었고, 어머니도 찢끔찢끔 울었다. 아버지는 애초부터 이 형을 단념하고 있었고, 어머니는 불쌍해서 이따금씩 찢끔거리곤 했다.

물론 평소에 동생에 대한 형으로서의 체모나 위신 같은 것도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서, 이미 철들자부터 형을 대하는 동생의 눈언저리와 입가엔 늘 쓴웃음 같은 것이 어리어 있었으니, 하얀 살갗의 여윈 얼굴에 이 쓴웃음은 동생의 오연한 성미와 잘 어울려 있었다.

어머니는 형에 대한 아버지의 단념이나 동생의 이런 투가 더 서러웠는지도 몰랐다. 그러나 형은 아버지나 어머니나 동생의 표정에 구애 없이 하루하루가 그저 천하태평이었다.

사변이 일어나자 형제가 다 군인의 몸이 됐다.

1951년 가을, 제각기 복의 포로로 잡혀 북쪽 후방으로 인계돼 가다가 둘은 더럭 만났다. 해가 질 무렵, 무너진 통천(通川)읍 거리에서였다.

형은 대뜸 울음보를 터뜨렸다. 펄렁한 야전잠바에 맨머리 바람이었고, 털털털리한 군화를 끌고 있었다.

동생도 한순간은 흠칫했으나, 형이 울음을 터뜨리자 난처한 듯 살그머니 외면을 했다. 형에 비해선 주제가 조금 깔끔해서 산뜻한 초록색 군 작업복 차림이었다.

(다)

동생의 눈에선 다시 눈물이 비어져 나왔다.

형은 별안간 두 눈이 휘둥그레져서 동생의 얼굴을 멀끔히 마주 쳐다보더니,

“왜 우니, 왜 울어, 왜, 왜. 어서 그치지 못하겠니.” 하면서도 도리어 제 편에서 또 울음을 터뜨리고 있었다.

이튿날, 형의 걸음걸이는 눈에 띄게 절름거렸다. 혼잣소리도 풀이 없었다.

“그만큼 걸었음 무던히 왔구만서두. 에에이, 이젠 좀 그만 걸지덜, 무던히 걸었구만서두.”

하고는 주위의 경비병들을 흘끔 걸눈질해 보았다. 경비병들은 물론 알은체도 안 했다. 바뀐 사람들은 꽤나 사나운 패들이었다.

그날 밤 형은 동생을 향해 쓸쓸하게 웃기만 했다.

“칠성아, 너 집에 가거든 말이다, 집에 가거든…….”

하고는 또 무슨 생각이 났는지 별쭙 웃으면서,

“히히, 내가 무슨 소릴 허니. 내가 집에 갈 땐 나두 갈 텐데, 앙 그러니? 내가 정신이 빠졌어.”

(라)

한참 뒤엔 또 동생의 어깨를 그리안으면서,

“야, 칠성아!”

동생의 얼굴을 똑바로 마주 쳐다보기만 했다.

바깥은 바람이 세었다. 거적문이 습기 어린 소리를 내며 열리고 닫히곤 하였다. 문이 열릴 때마다 눈 덮인 초라한 들판이 부유스름하게 아득히 뻗었다.

동생의 눈에선 또 눈물이 비어져 나왔다.

형은 또 벌컥 성을 내며,

“왜 우니, 왜? 흐흐흐.”

하고 제 편에서 더 더 울었다.

머칠이 지날수록 형의 걸음은 더 절름거려졌다. 행렬 속에서도 별로 혼잣소리 지껄이지 않았다. 평소의 험담지 않게 꽤나 조심스런 낮색이었다. 돌레를 두리번거리며 **경비병의 눈치를 흘끔거리기만** 했다. 이젠 밤에도 동생의 귀에다 입을 대고 이것저것 지껄이지 않았다. 그러나 먼 개 짖는 소리 같은 것에는 여전히 흠칫흠칫 놀라곤 했다. 동생은 또 참다못해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형은 왜 우느냐고 화를 내지도 않고 울음을 터뜨리지도 않았다. 동생은 이런 형이 서러워 더 더 흐느꼈다.

(마)

그날 밤, 바깥엔 함박눈이 내렸다.

형은 불현듯 동생의 귀에다 입을 댔다.

“너, 무슨 일이 생겨두 날 **형이라구 글지 마라**, 어영”

여느 때답지 않게 숙성한 사람 같은 억양이었다.

“울지두 말구 모르는 체만 해, 꼭.”

동생은 부러 큰 소리로,

“야하, 눈이 내린다.”

형이 지껄일 소리를 자기가 지금 대신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

그러나 이미 형은 그저 꼭 하니 굳은 표정이었다.

동생은 안타까워 또 울었다. 형을 그리안고 귀에다 입을 대고,
“형아, 형아, 정신 차려.”

이튿날, 한낮이 기울어서 어느 영 기슭에 다다르자, 형은 동생의 허벅다리를 쿡 찌르고는 걸던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형의 걸음걸이를 주의해 보아 오던 한 사람이 뒤에서 **따발총을 휘둘러 쏘았다**.

형은 앉은 채 앞으로 꼬꾸라졌다. 그 사람은 총을 어깨에 둘러메면서,

“메칠을 더 살갓다구 빼득대? 빼득대길.”

- 이호철, <나상> -

【문 6】윗글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물의 성격을 상세하게 설명하며 희화화하고 있다.
- ② 이야기를 외부와 내부로 구성하여 주제를 전달하고 있다.
- ③ 등장인물의 내적 독백과 갈등을 통해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 ④ 사건들을 병렬적으로 제시해 사건을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문 7】<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나상’은 별거벗은 모습이라는 뜻으로, 순수한 인간 본연의 모습을 간직한 상태를 말한다. 이 소설은 전쟁 중 포로 호송이라는 상황을 빌려 구성원을 획일화하는 사회에 대해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자유를 억압하는 외부의 감시, 전쟁의 폭력성에 의해 희생되는 개인의 모습을 통해 전쟁 상황에서 근원적인 인간성의 소중함을 전달하고 있다.

- ① 모자라지만 ‘둔감하고 위태위태하도록 출직했’던 형은 순수한 인간 본연의 모습을 간직한 인물로 볼 수 있겠군.
- ② 형이 ‘경비병의 눈치를 흘끔거리기만’하는 모습에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외부의 감시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겠군.
- ③ ‘형이라구 글지 마라’고 말하는 것은 구성원을 획일화하는 사회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④ 한 사람이 ‘따발총을 휘둘러 쏘’는 장면에서 전쟁의 폭력성과 근원적인 인간성 상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군.

【문 8】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형’은 모두가 긴장한 상황임을 알고 본인도 긴장하여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다.
- ② ‘동생’의 울음을 본 ‘형’은 울지 말라고 하면서 본인도 울음을 터뜨리고 있다.
- ③ 시간이 지나 ‘동생’의 귀에 어떤 말도 하지 않는 ‘형’의 모습을 보며 ‘동생’은 서러워했다.
- ④ ‘형’은 평소와는 다른 억양으로 ‘동생’에게 자신을 모른 체 하라고 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문9~문11]

(가)
가시리 가시리잇고 나눈
브리고 가시리잇고 나눈
위 증줄가 太平盛代(대평성디)

날러는 엇디 살라 ㅎ고
브리고 가시리잇고 나눈
위 증줄가 太平盛代(대평성디)

잡스와 두어리마는
㉠선호면 아니 올세라
위 증줄가 太平盛代(대평성디)

㉡설온 님 보내옵노니 나눈
가시는 듯 도셔 오쇼셔 나눈
위 증줄가 太平盛代(대평성디)

- 작자 미상, ‘가시리’ -

(나)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우리다.

영변(寧邊)에 약산(藥山)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우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즈려밟고 가시옵소서.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 김소월, ‘진달래꽃’ -

【문 9】(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임과의 재회를 희망하는 화자의 의지가 드러나고 있다.
- ② 구체적인 지명을 통해 이별의 상황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③ 이별 상황에 대한 체념과 화자의 자기 희생적 태도가 드러나고 있다.
- ④ 이별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음으로써 임에 대한 원망을 드러내고 있다.

【문10】㉠~㉣에 대해 나눈 대화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선 화자가 임을 떠나보내는 이유가 드러나며 서러움을 절제하는 화자의 모습이 느껴져.
- ② ㉡에서 ‘설온’의 주체를 화자로 본다면 임 역시 이별 상황을 아쉬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③ ㉢은 임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상징하는 소재로, 화자의 분신으로도 볼 수 있겠군.
- ④ ㉣은 인고의 자세가 드러나는 부분으로 이별 상황에 대한 화자의 슬픔을 반어적으로 강조하고 있군.

【문11】(가)와 (나)의 형식상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나)와 달리 수미 상관의 형식을 보이고 있다.
- ② (나)는 (가)와 달리 시어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③ (가)와 (나) 모두 전통적인 3·3·2조의 3음보 율격을 보이고 있다.
- ④ (가)와 (나) 모두 기-승-전-결의 4단 구성을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문12~문15]

(가)

구두 닦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손을 보면

구두 끝을 보면

㉠검은 것에서도 빛이 난다.

흰 것만이 빛나는 것은 아니다.

창문 닦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손을 보면

창문 끝을 보면

㉡비누 거품 속에서도 빛이 난다.

맑은 것만이 빛나는 것은 아니다.

청소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손을 보면

길 끝을 보면

㉢쓰레기 속에서도 빛이 난다.

깨끗한 것만이 빛나는 것은 아니다.

마음 닦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손을 보면

마음 끝을 보면

보이지 않는 것에서도 빛이 난다.

㉣보이는 빛만이 빛은 아니다.

닦는 것은 빛을 내는 일

성자가 된 청소부는

청소를 하면서도 성자이며

성자이면서도 청소를 한다.

- 천양희, 「그 사람의 손을 보면」-

(나)

왜 나는 조그마한 일에만 분개하는가

저 왕궁 대신에 왕궁의 음탕 대신에

50원짜리 갈비가 기름 덩어리만 나왔다고 분개하고

웅졸하게 분개하고 설령탕집 돼지 같은 주인 년한테 욕을 하고

웅졸하게 욕을 하고

한번 정정당당하게

불잡혀 간 소설가를 위해서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고 월남 파병에 반대하는

자유를 이행하지 못하고

20원을 받으려 세 번씩 네 번씩

찾아오는 야경꾼들만 증오하고 있는가

웅졸한 나의 전통은 유구하고 이제 내 앞에 정서(情緒)로 가
로놓여 있다

이러테면 이런 일이 있었다

부산에 포로수용소의 제14야전병원에 있을 때

정보원이 너스들과 스펀지를 만들고 거즈를

개기고 있는 나를 보고 포로 경찰이 되지 않는다고

남자가 뭐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고 놀린 일이 있었다
너스들 옆에서

지금도 내가 반항하고 있는 것은 이 스펀지 만들기와
거즈 접고 있는 일과 조금도 닮았다

개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 비명에 지고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애놈의 투정에 진다

떨어지는 은행나무 잎도 내가 밟고 가는 가시밭

아무래도 나는 비켜서 있다 ㉤절정 위에는 서 있지

않고 암만해도 조금쯤 옆으로 비켜서 있다

그리고 조금쯤 옆에 서 있는 것이 조금쯤

비겁한 것이라고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웅졸하게 반항한다

이발쟁이에게

땅 주인에게는 못하고 이발쟁이에게

구청 직원에게는 못하고 동회 직원에게도 못하고

야경꾼에게 20원 때문에 10원 때문에 1원 때문에

우습지 않으나 1원 때문에

모래야 나는 얼마큼 작으나

바람아 먼지야 풀아 나는 얼마큼 작으나

정말 얼마큼 작으나……

- 김수영,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문12】(가)의 ㉠~㉣ 중 <보기>의 밑줄 친 ㉤와 성격이 가장 다
른 것은?

< 보 기 >

텔레비전을 끄자

㉤풀벌레 소리 / 어둠과 함께 방안 가득 들어온다

어둠 속에서 들으니 벌레 소리들 환하다

별빛이 묻어 더 낭랑하다

귀뚜라미나 여치 같은 큰 울음 사이에는

너무 작아 들리지 않는 소리도 있다

그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한다

내 귀에는 들리지 않는 소리들이 드나드는

까맣고 좁은 통로들을 생각한다

그 통로의 끝에 두근거리며 매달린

여린 마음들을 생각한다

발뒤꿈치처럼 두꺼운 내 귀에 부딪혔다가

되돌아간 소리들을 생각한다

브라운관이 뿜어낸 험란한 빛이

내 눈과 귀를 두껍게 채우는 동안

그 울음소리들은 수 없이 나에게 왔다가

너무 단단한 벽에 놀라 되돌아갔을 것이다

하루살이처럼 전등에 부딪혔다가

바닥에 새카맣게 떨어졌을 것이다

크게 밤공기를 들이쉬니

허파 속으로 그 소리들이 들어온다

허파도 별빛이 묻어 조금은 환해진다

- 김기택,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한다」-

① ㉠

② ㉡

③ ㉢

④ ㉣

【문13】(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화자는 일상적 경험들을 나열하여 삶을 성찰하고 있어.
- ② 화자는 비속어 사용을 통해 자신의 속된 모습을 솔직하게 노출하고 있어.
- ③ 화자는 과거로부터 지속된 옹졸한 태도가 체질화되었음을 고백하고 있어.
- ④ 화자는 미비한 자연물과의 대비를 통해 자신의 왜소함을 극복하고 있어.

【문14】(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대조적 의미의 시구를 제시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② 일상적 시어를 사용하여 시적 정황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유사한 문장구조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④ 역설적 인식을 통해 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드러낸다.

【문15】(나)의 ㉓의 삶을 구현하고 있는 인물로 가장 보기 어려운 경우는?

- ① 악덕 기업의 제품 불매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중학생
- ② 불합리한 외교조약에 대해 반대시위를 벌이는 시민
- ③ 자신에게 불리한 인사 평가 제도에 대해 불평하는 회사원
- ④ 대기업의 노동 착취에 대해 비판적 논조의 기사를 쓴 기자

【문16】<보기 1>을 바탕으로 <보기 2>를 탐구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1>

- ㉠ 시제 선어말 어미 없이 과거 시제를 표현하는 경우가 있었음.
- ㉡ 서술어의 주체를 높이는 방법 중 하나로 선어말 어미를 사용하였음.
- ㉢ 현대 국어에서 두음 법칙의 적용을 받는 단어들이 두음 법칙의 적용을 받지 않았음.
- ㉣ 특정 부류의 모음이 같이 나타나는 모음조화 현상이 엄격히 지켜졌음.
- ㉤ 주어의 인칭에 따라 의문형 어미가 달리 나타나는 경우가 있었음.

< 보 기 2>

- ㉠ 남기 새 뉘 나니이다
[나무에 새 잎이 났습니다.]
- ㉡ 이 사르미 내 닐온 뜨들 아느녀
[이 사람이 내가 이른 뜻을 아느냐?]
- ㉢ 大王이 出令하샤디 뉘 바르래 드러가려 하느뇨
[대왕이 출령하시되 “누가 바다에 들어가려 하느냐?”]

- ① ㉠의 ‘나니이다’에서 ㉡을 확인할 수 있군.
- ② ㉢의 ‘出令하샤디’에서 ㉡을 확인할 수 있군.
- ③ ㉠의 ‘닐온’에서 ㉢을, ‘뜨들’에서 ㉤을 확인할 수 있군.
- ④ ㉡의 ‘아느녀’와 ㉢의 ‘하느뇨’에서 ㉤을 확인할 수 있군.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문17~문19]

(가)

임이여 강을 건너지 마오 公無渡河
임은 마침내 강을 건너는구료 公竟渡河
물에 빠져 죽으니 墮河而死
㉠이 내 임을 어이할꼬 當奈公何

- 작자 미상, <공무도하가> -

(나)

고인(古人)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 못 뵈
고인을 못 봐도 녀든 길 알피 잇니
녀든 길 알피 잇거든 아니 녀고 엇절고
- 이황, <도산십이곡> -

(다)

한숨아 세 한숨아 네 어니 틈으로 드러온다
고모장쥬 세살장쥬 가로다지 여다지에 암돌저귀 수돌저귀 비
목걸새 쭉닥 박고 용(龍) 거북 조물쇠로 수기수기 초엿논디
병풍(屏風)이라 덜걱 저븐 족자(簇子) | 라 디디글 몬다 네 어
니 틈으로 드러온다
어인지 너 온 날 밤이면 줌 못 드러 호노라
- 작자 미상 -

【문17】(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장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② 의문형 진술을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③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을 통해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④ 반어적 표현을 통해 시적 상황을 거부하는 화자를 표현하고 있다.

【문18】(가)의 밑줄 친 ㉠과 가장 유사한 정서가 드러나는 것은?

- ① 흑시나 하고 나는 밤을 기웃거린다/나는 풀이 죽는다/빛발은 한 치 앞을 못 보게 한다/웬지 느닷없이 그렇게 퍼붓는다/지금은 어쩔 수가 없다고
- 김춘수, ‘강우’ -
- ② 겨울 되자 온 세상 수북이 눈은 내려/저마다 하얗게 하얗게 분장하지만/나는/빈 가지 끝에 홀로 앉아/말없이/먼 지평선을 응시하는 한 마리/검은 까마귀가 되리라
- 오세영, ‘자화상 2’ -
- ③ 그런 사람들이/이 세상에서 알파이고/고귀한 인류이고/영원한 광명이고 다름 아닌 시인이라고
- 김종삼,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
- ④ 동방은 하늘도 다 끝나고/비 한 방울 내리잖는 그때에도/오히려 꽃은 빨강게 피지 않는가/내 목숨을 꾸며 쉬임 없는 날이여
- 이육사, ‘꽃’ -

【문19】(나)와 (다)의 형식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는 각 장이 4음보의 전통적인 율격으로 되어 있다.
- ② (다)는 중장이 다른 장에 비해 현저히 길어진 구성을 취하고 있다.
- ③ (나)와 (다)는 모두 초장, 중장, 종장의 3장 구성으로 되어 있다.
- ④ (다)는 (나)와 달리 종장의 첫 음보 음절 수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문20~문22]

‘수오재(守吾齋)*’라는 이름은 큰형님이 자기 집에 붙인 이름이다. 나는 처음에 이 이름을 듣고 이상하게 생각했다.

“나와 굳게 맺어져 있어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사물 가운데 나[吾]보다 더 절실한 것은 없다. 그러니 굳이 지키지 않아도 어디로 가겠는가. 이상한 이름이다.”

내가 장기로 귀양 온 뒤에 혼자 지내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하루는 갑자기 이 의문점에 대해 해답을 얻게 되었다. 나는 벌떡 일어나서 말했다.

“천하 만물 가운데 지킬 것은 하나도 없지만, 오직 나[吾]만은 지켜야 한다. 내 밭을 지고 달아날 자가 있는가. 밭은 지킬 필요가 없다. 내 집을 지고 달아날 자가 있는가. 집도 지킬 필요가 없다. 내 정원의 여러 가지 꽃나무나 과일나무들을 뽑아 갈 자가 있는가. 그 뿌리는 땅속에 깊이 박혔다. 내 책을 훔쳐 없앨 자가 있는가. 성현의 경전이 세상에 퍼져 물이나 불처럼 흔한데, 누가 감히 없앨 수 있겠는가. 내 옷이나 양식을 훔쳐서 나를 웅색하게 하겠는가. 천하에 있는 실이 모두 내가 입을 옷이며, 천하에 있는 곡식이 모두 내가 먹을 양식이다. 도둑이 비록 훔쳐 간대야 한두 개에 지나지 않을 테니, 천하의 모든 옷과 곡식을 없앨 수 있겠는가. 그러니 천하 만물은 모두 지킬 필요가 없다.

그런데 오직 ㉠나[吾]라는 것만은 잘 달아나서, 드나드는 데 일정한 법칙이 없다. 아주 친밀하게 붙어 있어서 서로 배반하지 못할 것 같다가도, 잠시 살피지 않으면 어디든지 못 가는 곳이 없다. 이익으로 피면 떠나가고, 위험과 재앙이 겹쳐 주어도 떠나간다. 마음을 울리는 아름다운 음악 소리만 들어도 떠나가며, 눈썹이 새까맣고 이가 하얀 미인의 요염한 모습만 보아도 떠나간다. 한 번 가면 돌아올 줄을 몰라서, 붙잡아 만류할 수가 없다. 그러니 천하에 나[吾]보다 더 잃어버리기 쉬운 것은 없다. 어찌 실과 끈으로 묶고 빗장과 자물쇠로 잠가서 나를 굳게 지키지 않겠는가.”

나는 나를 잘못 간직했다가 잃어버렸던 자다. 어렸을 때 과거가 좋게 보여서, 10년 동안이나 과거 공부에 빠져들었다. 그러다가 결국 처지가 바뀌어 조정에서 벗어나 검은 사모관대*에 비단 도포를 입고, 12년 동안이나 대낮에 미친 듯이 큰길에 뛰어다녔다. 그러다가 또 처지가 바뀌어 한강을 건너고 문경 새재를 넘게 되었다. 친척과 조상의 무덤을 버리고 곧바로 아득한 바닷가의 대나무 숲에 달려와서야 멈추게 되었다. 이때에는 나[吾]에게 물었다.

“너는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왔느냐? 여우나 도깨비에게 홀려서 끌려왔느냐? 아니면 바다 귀신이 불러서 왔는가? 네 가정과 고향이 모두 초천에 있는데, 왜 그 본바닥으로 돌아가지 않느냐?”

그러나 나[吾]는 끝내 멍하니 움직이지 않으며 돌아갈 줄을 몰랐다. 얼굴빛을 보니 마치 얽매인 곳에 있어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가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결국 붙잡아 이곳에 함께 머물렀다. 이때 둘째 형님도 나[吾]를 잃고 나를 쫓아 남해 지방으로 왔는데, 역시 나[吾]를 붙잡아서 그곳에 함께 머물렀다.

오직 내 큰형님만 나[吾]를 잃지 않고 편안히 단정하게 수오재에 앉아 계시니, 본디부터 지키는 것이 있어서 나[吾]를 잃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이게 바로 큰형님이 그 거실에 수오재라고 이름 붙인 까닭일 것이다.

큰형님은 언제나 말씀하셨다.

“아버님께서 내게 태현(太玄)이라고 자를 지어 주셔서, 나는 오로지 내 태현을 지키려고 했다네. 그래서 내 거실에다가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지.”

하지만 이것은 핑계다. 맹자가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지키는 것이 큰가? 몸을 지키는 것이 크다.”라고 했으니, 이 말씀이 진실이다. 내가 스스로 말한 내용을 써서 큰형님께 보이고, 수오재의 기로 삼는다.

- 정약용, ‘수오재기’ -

*수오재: 나를 지키는 집

*사모관대: 벼슬아치의 예복

【문20】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글쓴이가 얻은 깨달음의 내용을 열거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 ② 대상에 대한 의문을 타인과의 문답 과정을 통해 해소하고 있다.
- ③ 옛 성현의 말을 인용하여 자신의 주장에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 ④ 서두에 대상에 대한 의문을 제시함으로써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문21】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큰형님’은 자신의 집 거실에 직접 ‘수오재’라는 이름을 붙였다.
- ② ‘나’는 과거에 급제하여 관직에 나아가 10년 이상 나랏일을 했다.
- ③ ‘나’는 ‘수오재’에 대해 생긴 의문에 대한 해답을 장기에 와서 얻는다.
- ④ ‘둘째 형님’은 ‘나’와 마찬가지로 귀양을 왔으나,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

【문22】㉠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누가 훔쳐 가기 쉬운 밭과 달리, 스스로 달아나기를 잘한다.
- ② 나를 웅색하게 만드는 옷과 달리, 유혹에 쉽게 떠나가지 않는다.
- ③ 널리 퍼져 없애기 어려운 책과 달리, 살피지 않으면 금세 달아난다.
- ④ 누군가 가져가면 돌아오지 않는 양식과 달리, 떠났다가도 곧 돌아온다.

- 계

속 -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문23~문25]

프레임(frame)은 영화와 사진 등의 시각 매체에서 화면 영역과 화면 밖의 영역을 구분하는 경계로서의 틀을 말한다. 카메라로 대상을 포착하는 행위는 현실의 특정한 부분만을 떼어내 프레임에 담는 것으로, 찍은 사람의 의도와 메시지를 ㉠내포한다. 그런데 문, 창, 기둥, 거울 등 주로 사각형이나 원형의 형태를 갖는 물체들을 이용하여 프레임 안에 또다른 프레임을 만드는 경우가 있다. 이런 기법을 ‘이중 프레임밍’, 그리고 안에 있는 프레임을 ‘이차 프레임’이라 칭한다. 이차 프레임의 일반적인 기능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화면 안의 인물이나 물체에 대한 시선 ㉡유도 기능이다. 대상을 틀로 에워싸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강조하는 효과가 있으며, 대상이 작거나 구도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을 때도 존재감을 부각하기가 용이하다. 또한 프레임 내 프레임이 많을수록 화면이 다층적으로 되어, 자칫 밋밋해질 수 있는 화면에 깊이감과 입체감이 부여된다. 광고의 경우,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이차 프레임 안에 상품을 위치시켜 주목을 받게 하는 사례들이 있다. 다음으로, 이차 프레임은 작품의 주제나 내용을 암시하기도 한다. 이차 프레임은 시각적으로 내부의 대상을 외부와 분리하는데, 이는 곧잘 심리적 단절로 이어져 구속, 소외, 고립 따위를 ㉢환기한다. 그리고 이차 프레임 내부의 대상과 외부의 대상 사이에는 정서적 거리감이 조성되기도 한다. 어떤 영화들은 작중 인물을 문이나 창을 통해 반복적으로 보여 주면서, 그가 세상으로부터 격리된 상황을 암시하거나 불안감, 소외감 같은 인물의 내면을 시각화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이차 프레임은 ‘이야기 속 이야기’인 액자형 서사 구조를 지시하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 일례로, 어떤 영화는 작중 인물의 현실 이야기와 그의 상상에 따른 이야기로 구성되는데, 카메라는 이차 프레임으로 사용된 창을 비추어 한 이야기의 공간에서 다른 이야기의 공간으로 들어가거나 빠져 나온다. 그런데 현대에 이를수록 시각 매체의 작가들은 이차 프레임의 ㉣범례에서 벗어나는 시도들로 다양한 효과를 끌어내기도 한다. 가령 이차 프레임 내부 이미지의 형태를 식별하기 어렵게 함으로써 관객의 지각 행위를 방해하여, 강조의 기능을 무력한 것으로 만들거나 서사적 긴장을 유발하기도 한다. 또 문이나 창을 봉쇄함으로써 이차 프레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시켜 공간이나 인물의 폐쇄성을 드러내기도 한다. 혹은 이차 프레임 내의 대상이 그 경계를 넘거나 파괴하도록 하여 호기심을 자극하고 대상의 운동성을 강조하는 효과를 낳는 사례도 있다.

【문23】윗글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차 프레임의 기능을 병렬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 ② 이차 프레임이 사용되는 다양한 예시를 제시하고 있다.
- ③ 이차 프레임의 효과에 대한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고 있다.
- ④ 프레임, 이중 프레임밍, 이차 프레임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문24】문맥상 ㉠~㉣의 의미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어떤 성질이나 뜻 따위를 속에 품음.
- ② ㉡: 사람이나 물건을 목적인 장소나 방향으로 이끌.
- ③ ㉢: 탁한 공기를 맑은 공기로 바꿈.
- ④ ㉣: 예시하여 모범으로 삼는 것.

【문25】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프레임 밖의 영역에는 찍은 사람의 의도와 메시지가 담긴다.
- ② 이차 프레임 안의 대상과 밖의 대상 사이에는 거리감이 조성되기도 한다.
- ③ 이차 프레임 내 대상의 크기가 작을 경우에는 대상의 존재감이 강조되기 어렵다.
- ④ 이차 프레임 안의 화면을 식별하기 어렵게 만들 경우, 역설적으로 대상을 강조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한국사 25문】

①책형

【문 1】밑줄 친 ‘이 단체’의 활동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 설립된 이 단체는 고종에게 아래의 문서를 재가 받았어요.

1. 외국인에게 의지하지 말고 관민이 합심하여 황제권을 공고히 할 것.
2. 외국과의 이권에 관한 계약과 조약은 해당 부처의 대신과 중추원 의장이 함께 날인하여 시행할 것.
-

< 보 기 >

- ㄱ. ‘구국 운동 상소문’을 지었다.
- ㄴ. 고종 강제 퇴위 반대 운동에 앞장섰다.
- ㄷ. 일제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에 반대하였다.
- ㄹ. 러시아의 내정 간섭과 이권요구에 반대하였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문 2】다음 법령에 따라 추진된 사업이 실시되었던 시기의 모습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토지의 조사 및 측량은 이 영에 의한다.
...(중략)...
4. 토지의 소유자는 조선 총독이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주소, 성명, 명칭 및 소유지의 소재, 지목, 자번호, 사방의 경계표, 등급, 지적, 결수를 임시 토지 조사 국장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유지는 보관 관청에서 임시 토지 조사 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① 국민부가 조선 혁명당을 결성하는 모습
- ② 러시아에 대한 광복군 정부가 조직되는 모습
- ③ ‘신여성’, ‘삼천리’ 등의 잡지가 발행되는 모습
- ④ 연해주에 한국인이 중앙 아시아로 강제 이주 되는 모습

【문 3】(가)~(다) 사건을 일어난 순서대로 가장 바르게 나열한 것은?

- (가) 이고 등이 임종식, 이복기, 한리를 비롯하여 왕을 모시던 문관 및 대소 신료들을 살해하였다. 정중부 등이 왕을 모시고 궁으로 돌아왔다.
- (나) 김부식이 군대를 모아서 서경을 공격하였다. 서경이 함락되자 조광은 스스로 불에 뛰어들어 죽었다.
- (다) 최사전의 회유에 따라 척준경은 마음을 돌려 계책을 정하고 이자겸을 제거하였다.

- ① (나) - (가) - (다) ② (나) - (다) - (가)
③ (다) - (가) - (나) ④ (다) - (나) - (가)

【문 4】(가), (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 | |
|---|--|
| (가) 수신사 김홍집이 가져와 유포한 황준헌의 사사로운 책자를 보노라면, 러시아, 미국, 일본은 같은 오랑캐입니다. | (나) 이미 국모의 원수를 생각하며 이를 갈았는데, ... 이에 감히 먼저 의병을 일으키고서 마침내 이 뜻을 세상에 포고하노라. |
|---|--|

< 보 기 >

- ㄱ. 관민 공동회가 개최되었다.
- ㄴ. 교육 입국 조서가 반포되었다.
- ㄷ.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 점령하였다.
- ㄹ. 나철이 대중교를 창시하였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문 5】다음 사실이 있었던 시대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엄수안은 영월군의 향리로 키가 크고 담력이 있었다. 나라의 법에 향리에게 아들 셋이 있으면 아들 하나는 벼슬하는 것이 허락되어서, 엄수안은 관례에 따라 중방서리로 보임되었다. 원종 때 과거에 급제하여 도병마녹사에 임명되었다.

< 보 기 >

- ㄱ. 주현이 속현보다 적었다.
- ㄴ. 모든 군현에 수령이 파견되었다.
- ㄷ. 중서문하성의 낭사는 어사대와 함께 대간으로 불렸다.
- ㄹ. 전국을 8도로 나누고 그 아래 부, 목, 군, 현을 두었다.

-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ㄱ, ㄷ ④ ㄷ, ㄹ

【문 6】다음 주장이 제기된 시기의 문화적 특징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폐를 끼치는 것으로는 담배만한 것이 없습니다. 추위를 막지도 못하고 요깃거리도 못 되면서 심는 땅은 반드시 기름져야 하고 흙을 덮고 김매는 수고는 대단히 많이 드니 어찌 낭비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장사치들이 왕래하며 팔고 있어 이에 쓰는 돈이 적지 않습니다. 조정에서 전황(錢荒)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데, 그 근원을 따져 보면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만약 담배 재배를 철저히 금한다면 곡물을 산출하는 땅이 더욱 늘어나고 농사에 힘쓰는 백성들이 더욱 많아질 것입니다.

< 보 기 >

- ㄱ. 문화 인식의 폭이 확대되어 백과 사전류의 저서가 편찬되었다.
- ㄴ. 격식에 구애받지 않고 감정을 표현하는 사설시조가 유행하였다.
- ㄷ. 주자소가 설치되어 재미자를 비롯한 다양한 활자를 주조하였다.

- ① ㄱ ② ㄱ, ㄴ ③ ㄴ ④ ㄴ, ㄷ

【문 7】(가)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몽골의 대군이 경기 지역으로 침입하자 최이가 재추 대신들을 모아 놓고 (가) 천도를 의논하였다. 사람들은 옮기기를 싫어하였으나 최이의 세력이 두려워서 감히 한마디도 발언하는 자가 없었다. 오직 유승단이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섬기는 것은 도리에 맞는 일이니, 예로써 섬기고 믿음으로써 사귀면 그들도 무슨 명목으로 우리를 괴롭히겠는가? 성곽과 종사를 내버리고 섬에 구차히 엮드려 세월을 보내면서 장정들을 적의 칼날에 죽게 만들고, 노약자들을 노예로 잡혀가게 하는 것은 국가를 위한 계책이 아니다.”라고 반대하였다.

< 보 기 >

- ㄱ. 동녕부가 설치되었다.
- ㄴ. 조선왕조실록 사고가 세워졌다.
- ㄷ. 망이·망소의 난이 일어났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ㄴ ④ ㄴ, ㄷ

【문 8】(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최현배, 이극로 등이 중심이 된 (가) 은/는 ‘표준어 및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을 제정하는 등 한글 표준화에 기여하였다. 이에 일제는 1942년 (가) 을/를 독립운동 단체로 간주하여 회원들을 대거 검거하였다. 일제는 이들을 고문하여 자백을 강요하였고 이윤재, 한징이 옥사하였다.

< 보 기 >

- ㄱ. 국문 연구소를 설립하였다.
- ㄴ.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만들었다.
- ㄷ. 『우리말 큰사전』 편찬을 준비하였다.
- ㄹ. 『개벽』, 『어린이』 등의 잡지를 발행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문 9】㉠ 이후에 일어난 사건으로 가장 옳은 것은?

대한제국 대황제는 대프랑스 대통령에게 글을 보냅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에 ㉠불의한 일을 자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그에 대한 증거입니다. 첫째, 우리 정부대신이 조인하였다고 운운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으며 위협을 받아 강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둘째, 저는 조인을 허가한 적이 없습니다. 셋째, 정부회의 운운하나 국법에 의거하지 않고 회의를 한 것이며 일본인들이 강제로 가둔 채 회의한 것입니다. 상황이 그런즉 이른바 조약이 성립되었다고 일컫는 것은 공법을 위배한 것이므로 의당 무효입니다. 당당한 독립국이 이러한 일로 국체가 손상당하였으므로 원컨대 대통령께서는 즉시 공사관을 이전처럼 우리나라에 다시 설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① 포츠머스 조약이 체결되었다.
- ② 이사청에 관리가 파견되었다.
- ③ 러시아가 용암포를 점령하고 조차를 요구하였다.
- ④ 제1차 한·일협약(한일 외국인 고문 용병에 관한 협정서)이 조인되었다.

【문10】(가), (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가장 옳은 것은?

- (가) 영락 5년 왕은 패려(稗麗)가 ……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친히 군사를 이끌고 가서 토벌하였다. 부산(富山)·부산(阜山)을 지나 염수(鹽水) 가에 이르렀다. 600~700명(營)을 격파하니, 노획한 소·말·양의 수가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 (나) 고구려왕 거련(巨璉)이 병사 3만 명을 거느리고 한성을 포위하였다. 고구려 사람들이 병사를 네 방면의 길로 나누어 협공하고 또 바람을 이용해서 불을 질러 성문을 태우니, 성 밖으로 나가 항복하려는 자도 있었다. 임금은 기병 수십 명을 거느리고 성문을 나가 서쪽으로 달아났는데, 고구려 병사에게 살해되었다.

- ① 신라에 병부가 설치되었다.
- ② 고구려가 평양으로 천도하였다.
- ③ 고이왕이 좌평과 관등제의 기본 골격을 마련하였다.
- ④ 백제군의 공격으로 고국원왕이 전사하였다.

【문11】(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평택현감 변징원이 하직하니, 임금이 그를 내전으로 불러 만났다. 임금이 변징원에게 “그대는 이미 수령을 지냈으니, 백성을 다스리는 데 무엇을 먼저 하겠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변징원이 “마땅히 칠사(七事)를 먼저 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칠사라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질문하니, 변징원이 대답하기를, (가)

『성종실록』

< 보 기 >

- ㄱ. 호구를 늘리는 것입니다.
- ㄴ. 농상(農桑)을 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 ㄷ. 역을 고르게 부과하는 것입니다.
- ㄹ. 사송(詞訟)을 간략하게 하는 것입니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ㄷ, ㄹ

【문12】다음 조약이 조인된 시기를 연표에서 가장 옳게 고른 것은?

- 제3조 각 당사국은 타 당사국의 행정 지배하에 있는 영토와 각 당사국이 타 당사국의 행정 지배하에 합법적으로 들어갔다고 인정하는 금후의 영토에 있어서 타 당사국에 대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무력 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 인정하고 공통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
- 제4조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

	(가)	(나)	(다)	(라)	
대한민국	6·25	제2차	5·16	한일 기본	
정부수립	전쟁 발발	개정헌법 공포	군사정변	조약조인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문13】다음 연설을 한 대통령의 집권기에 일어난 사실로 가장 옳은 것은?

저는 이 순간 엄숙한 마음으로 헌법 제76조 제1항의 규정예 의거하여,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대통령 긴급 명령」을 반포합니다. …… 금융실명제에 대한 우리 국민의 합의와 개혁에 대한 강렬한 열망에 비추어 국회의원 여러분 이 압도적인 지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드디어 우리는 금융실명제를 실시 합니다. 이 시간 이후 모든 금융거래는 실명으로만 이루어집니다.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지 않고는 이 땅의 부정부패를 원 천적으로 봉쇄할 수가 없습니다.

- ① YH 무역 사건이 일어났다.
- ② 제4차 경제 개발 계획이 추진되었다.
- ③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이 시행되었다.
- ④ 한국이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에 가입하였다.

【문14】(가)~(라)를 시대순으로 가장 바르게 연결한 것은?

(가) 견훤이 후백제를 건국하였다.
(나) 신문왕이 관료전을 지급하였다.
(다) 광개토 대왕이 왜군을 격퇴하였다.
(라) 선왕 시기에 ‘해동성국’으로 불렸다.

- ① (가)-(다)-(나)-(라)
- ② (나)-(다)-(라)-(가)
- ③ (다)-(나)-(라)-(가)
- ④ (라)-(나)-(다)-(가)

【문15】밀줄 친 ‘법’을 시행한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백성들에게 금하는 법 8조를 만들었다.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이고,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는다. 도둑 잡힌 자는 노비로 삼는다. 용서받고자 하는 자는 한 사람마다 50만 전을 내야 한다. …… 여자들은 모두 정숙하여 음란 하고 편벽된 짓을 하지 않았다.

『한서』

- ① 서옥제라는 혼인 풍습이 있었다.
- ② 해마다 영고라는 제천행사를 열었다.
- ③ 목지국의 지배자가 왕으로 추대되었다.
- ④ 한 무제가 보낸 군대의 침공으로 멸망하였다.

【문16】다음 사건이 일어난 왕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가장 옳은 것은?

소손녕: 그대 나라는 신라 땅에서 일어났고, 고구려 땅은 우리 땅인데 너희들이 쳐들어와 차지하였다.
서 희: 우리는 고구려를 계승하여 나라 이름을 고려라 하였다. 땅의 경계를 논한다면 그대 나라의 동경도 다 우리 땅이다.

- ① 발해가 멸망하였다.
- ② 이자겸이 난을 일으켰다.
- ③ 최충이 9재 학당을 설치하였다.
- ④ 중앙 관제를 2성 6부로 정비하였다.

【문17】㉠을 비판한 사례로 가장 옳은 것은?

근세 조선사에서 유형원·이익·이수광·정약용·서유구·박지원 등 이른바 ‘현실학파(現實學派)’라고 불러야 할 우수한 학자가 배출되어, 우리의 경제학적 영역에 대한 선물로 남겨준 업적이 결코 적지 않다. …… ㉠후쿠다 도쿠조(福田德三)는 조선에서 봉건제도의 존재를 전면적으로 부정했다는 점에서 그에 승복할 수 없는 것이다.

- ① 백남운이 조선사회경제사를 저술하였다.
- ② 이병도, 손진태 등이 진단학보를 발간하였다.
- ③ 조선사 편수회 인사들이 청구학회를 결성하였다.
- ④ 신채호가 대한매일신보에 독사신론을 연재하였다.

【문18】(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당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가)은/는 ‘모든 존재가 서로 의존하며 조화를 이루고 있다.’라는 사상을 강조하여 통일 직후 신라 사회를 통합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또한 ㉠(가)은/는 부석사를 중심으로 많은 제자를 양성하여 교단을 형성하고 각지에 사찰을 세웠다. 또한, 현세에서 겪는 고난을 구제받고자 하는 관음 신앙을 전파하였다.

- ① 무애가를 지어 불교 대중화에 기여하였다.
- ② 화엄일승법계도를 지어 화엄 사상을 정립하였다.
- ③ 불교 교단을 통합하기 위해 천태종을 개창하였다.
- ④ 인도와 중앙아시아를 여행하고 왕오천축국전을 저술하였다.

【문19】다음 사건이 일어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옳은 것은?

전제상정소에서 다음과 같이 논의하였다. “우리나라는 지질의 고척(膏瘠)이 남쪽과 북쪽이 같지 아니합니다. 하지만 그 전품(田品)의 분등(分等)을 8도를 통한 표준으로 계산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1도(道)로써 나누었기 때문에 남세의 경중(輕重)이 다릅니다. 부익부 빈익빈이 심해지니 옳지 못한 일입니다. 여러 도의 전품을 통고(通考)하여 6등급으로 나눈다면 전품이 바로잡힐 것이며 조세도 고르게 될 것입니다.” 임금은 이를 그대로 따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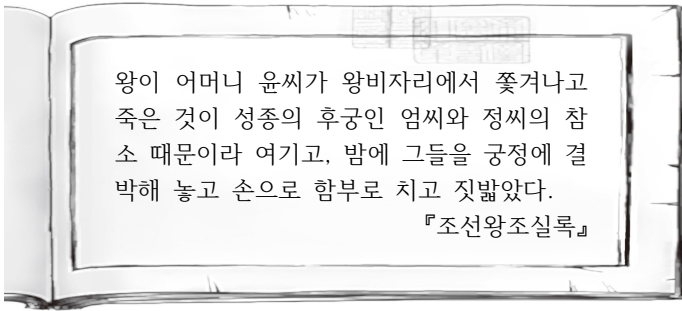
- ① 3포 왜란으로 입은 피해를 걱정하는 어부
- ② 벽란도에서 송나라 선원과 흥정하는 상인
- ③ 농가집성의 내용을 읽으며 공부하는 농부
- ④ 불법적인 상행위를 감시하는 경시서 관리

【문20】다음 주장을 펼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국가는 마땅히 한 집의 생활에 맞추어 재산을 계산해서 토지 몇 부(負)를 1호의 영업전으로 한다. 땅이 많은 자는 빼앗아 줄이지 않고 미치지 못하는 자도 더 주지 않으며, 돈이 있어 사고자 하는 자는 비록 천백 결이라도 허락하여 주고, 땅이 많아서 팔고자 하는 자는 다만 영업전 몇 부 이외에는 허락하여 준다.

- ① 한국사의 독자적인 정통론을 체계화하였다.
- ② ‘목민심서’와 ‘경제유표’ 등의 저술을 남겼다.
- ③ 나라를 쪼먹는 여섯 가지의 폐단을 지적하였다.
- ④ 신분제 따라 차등 있게 토지를 분배하는 균전론을 내세웠다.

【문21】다음 사건과 관련 있는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수양대군이 단종을 내쫓고 왕위에 올랐다.
- ② 조광조를 비롯한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었다.
- ③ 연산군이 훈구파들을 제거하고 권력을 강화하였다.
- ④ 이조 전랑의 임명 문제를 둘러싸고 사림간 대립이 일어났다.

【문22】㉠ 기간에 일어난 사실로 가장 옳은 것은?

임금이 대광 박술희에 말하였다. “짐은 미천한 가문에서 일어나 그릇되게 사람들의 추대를 받아 몸과 마음을 다하여 노력한 지 19년 만에 삼한을 통일하였다. 외람되게 ㉠25년 동안 왕위에 있었으니 몸은 이미 늙었으나 후손들이 사사로운 정에 치우치고 욕심을 함부로 부려 나라의 기강을 어지럽힐까 크게 걱정된다. 이에 훈요를 지어 후세에 전하니 바라건대 아침저녁으로 살펴 길이 귀감으로 삼기 바란다.”

- ① 공산 전투가 전개되었다.
- ② 노비안검법이 시행되었다.
- ③ 수덕만세라는 연호가 등장하였다.
- ④ 최승로가 시무 28조를 제시하였다.

【문23】(가), (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가장 옳은 것은?

(가) 진흥왕이 이사부에게 토벌을 명하고 사다함에 보좌하게 하였다. …… 이사부가 군사를 이끌고 다다르자, 대가야가 모두 항복하였다.

『삼국사기』

(나) 백제군 한 사람이 1,000명을 당해냈다. 신라군은 이에 퇴각하였다. 이와 같이 진격하고 퇴각하길 네 차례에 이르러, 계백은 힘이 다하여 죽었다.

『삼국사기』

- ① 백제가 웅진으로 천도하였다.
- ② 소수림왕이 불교를 수용하였다.
- ③ 신라가 기벌포에서 당군을 물리쳤다.
- ④ 고구려가 수나라 군대를 살수에서 격퇴하였다.

【문24】다음 헌법이 적용된 시기에 일어난 사실로 가장 옳은 것은?

- 제38조 ① 대통령은 통일에 관한 중요정책을 결정하거나 변경함에 있어서, 국론통일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일 주체 국민 회의의 심의에 붙일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재적대 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통일정책은 국민의 총의로 본다.

제40조 통일 주체 국민 회의는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의 국회의원을 선거한다.

- ① 광주 대단지 사건이 일어났다.
- ② 7·4 남북 공동 성명이 발표되었다.
- ③ 국가 보위 비상 대책 위원회가 조직되었다.
- ④ 전태일이 근로기준법 준수를 요구하며 분신하였다.

【문25】밑줄 친 ‘신’이 속한 봉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소현 세자가 일찍 세상을 뜨고 효종이 인조의 제2 장자로서 종묘를 이었으니, 대왕대비께서 효종을 위하여 3년의 상복을 입어야 할 것은 예제로 보아 의심할 것이 없는데, 지금 그 기간을 줄여 1년으로 했습니다. 대체로 3년의 상복은 장자를 위하여 입는데 그가 할아버지, 아버지의 정통을 이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효종으로 말하면 대왕대비에게는 이미 적자이고, 또 왕위에 올라 존엄한 몸인데, 그의 복제에서는 3년 상복을 입을 수 없는 자와 동등하게 되었으니, 어디에 근거를 둔 것인지 신(臣)은 모르겠습니다.

- ① 노론과 소론으로 분열되었다.
- ② 기사환국을 통해 재집권하였다.
- ③ 인목대비의 폐위를 주장하였다.
- ④ 성혼의 학파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문 1】Henry Molaison에 대한 다음 글의 내용과 가장 일치하지 않는 것은?

Henry Molaison, a 27-year-old man, suffered from debilitating *seizures for about a decade in the 1950s. On September 1, 1953, Molaison allowed surgeons to remove a section of tissue from each side of his brain to stop the seizures. The operation worked, but Molaison was left with permanent **amnesia, unable to form new memories. This tragic outcome led to one of the most significant discoveries in 20th century brain science: the discovery that complex functions like learning and memory are linked to specific regions of the brain. Molaison became known as "H.M." in research to protect his privacy. Scientists William Scoville studied Molaison and nine other patients who had similar surgeries, finding that only those who had parts of their ***medial temporal lobes removed experienced memory problems, specifically with recent memory. He discovered that a specific structure in the brain was necessary for normal memory. Molaison's life was a series of firsts, as he couldn't remember anything he had done before. However, he was able to acquire new motor skills over time. Studies of Molaison allowed neuroscientists to further explore the brain networks involved in conscious and unconscious memories, even after his death in 2008.

* seizure 발작

** amnesia 기억 상실증

*** medial temporal lobe 내측 측두엽

- ① 외과의사들이 발작을 멈추기 위해 그의 뇌의 양쪽에서 조직의 한 부분을 제거하게 했다.
- ② 수술 결과는 학습과 기억과 같은 복잡한 기능들이 뇌의 특정 영역과 연결되어 있다는 발견으로 이어졌다.
- ③ 살아가면서 이전에 한 일을 조금씩 기억할 수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운동 능력이 약화되었다.
- ④ 그에 대한 연구는 의식적 기억 및 무의식적 기억과 관련된 뇌의 연결 조직을 더 탐구할 수 있게 하였다.

【문 2】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가장 틀린 것은?

Humans have an inborn *affinity for nature that goes beyond the tangible benefits we derive from the microbes, plants, and animals of the **biomes ① in which we live. The idea that nature in the form of landscapes, plants, and animals ② are good for our well-being is old and can be traced to Charles Darwin or earlier. This idea was called biophilia by psychologist Erich Fromm and was studied by Harvard ant biologist Edward O. Wilson and Stephen Kellert. In 1984, Wilson published *Biophilia*, which was followed by another book, The Biophilia Hypothesis, ③ edited by Kellert and Wilson, in 1995. Their biophilia hypothesis is ④ that humans have a universal desire to be in natural settings.

* affinity 친밀감

** biome 생물군계(生物群系)

【문 3】다음 글의 내용과 가장 일치하지 않는 것은?

Life on Earth faced an extreme test of survivability during the *Cryogenian Period, which began 720 million years ago. The planet was frozen over most of the 85 million-year period. But life somehow survived during this time called "Snowball Earth". Scientists are trying to better understand the start of this period. They believe a greatly reduced amount of the sun's warmth reached the planet's surface as its radiation bounced off the white ice sheets. Also, they said the fossils found in black shale and identified as seaweed are a sign that livable water environments were more widespread at the time than they once believed. The findings of some research support the idea that the planet was more of a "Slushball Earth" with melting snow. This enabled the earliest forms of complex life to survive in areas once thought to have been frozen solid. The researchers said the most important finding was that ice-free, open water conditions existed in place during the last part of so-called "the Ice Age". The findings demonstrate that the world's oceans were not completely frozen. It means areas of habitable refuge existed where multicellular organisms could survive.

* Cryogenian Period 크라이오제니아기
(600~850만년 전 시기)

- ① 지구는 8천 5백만 년의 대부분의 기간 동안 얼어 있었지만 생명체는 살아남았다.
- ② 과학자들은 "눈덩이 지구" 기간 동안에도 지구의 표면에 다다른 태양의 온기가 크게 감소하지 않았다고 믿고 있다.
- ③ "슬러시볼 지구"의 기간 동안에 초기 형태의 복잡한 생명체가 생존하는 것은 가능했다.
- ④ 연구결과 "빙하 시대" 후반기의 세계의 바다가 완전히 얼지 않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문 4】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As global temperatures rise, so do sea levels, threatening coastal communities around the world. Surprisingly, even small organisms like oysters ----- Oysters are keystone species with *ripple effects on the health of their ecosystems and its inhabitants. Just one adult oyster can filter up to fifty gallons of water in a single day, making waterways cleaner. Healthy oyster reefs also provide a home for hundreds of other marine organisms, promoting biodiversity and ecosystem balance. As rising sea levels lead to pervasive flooding, oyster reefs act as walls to buffer storms and protect against further coastal erosion.

* ripple effect 파급효과

- ① can come to our defense
- ② can be the food for emergency
- ③ may be contaminated by microplastics
- ④ can increase the income of local residents

【문 5】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The myth of the taste map, which claims that different sections of the tongue are responsible for specific tastes, is incorrect, according to modern science. The taste map originated from the experiments of German scientist David Hänig in the early 1900s, which found that the tongue is most sensitive to tastes along the edges and not so much at the center. However, this has been misinterpreted over the years to claim that sweet is at the front of the tongue, bitter is at the back, and salty and sour are at the sides. In reality, different tastes are sensed by *taste buds all over the tongue. Taste buds work together to make us crave or dislike certain foods, based on our long-term learning and association. For example, our ancestors needed fruit for nutrients and easy calories, so we are naturally drawn to sweet tastes, while bitterness in some plants serves as a warning of toxicity. Of course, different species in the animal kingdom also have unique taste abilities: carnivores do not eat fruit and therefore do not crave sugar like humans do.

* taste bud 미뢰



The claim that different parts of the tongue are responsible for specific tastes has been proven to be ____ (A) ____ by modern science, and the taste preferences are influenced by the ____ (B) ____ history.

(A) (B)

- ① correct ... evolutionary
- ② false ... evolutionary
- ③ false ... psychological
- ④ correct ... psychological

【문 6】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가장 틀린 것은?

Language is the primary means ① by which people communicate with one another. Although most creatures communicate, human speech is more complex, more creative, and ② used more extensively than the communication systems of other animals. Language is an essential part of what it means to be human and is a basic part of all cultures. Linguistic anthropology is concerned with understanding language and its relation to culture. Language is an amazing thing ③ what we take for granted. When we speak, we use our bodies—our lungs, vocal cords, mouth, tongue, and lips—to produce noises of varying tone and pitch. And, somehow, when we and others ④ do this together, we are able to communicate with one another, but only if we speak the same language. Linguistic anthropologists want to understand the variation among languages and how language is structured, learned, and used.

【문 7】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Healthcare chatbots have been purposed to solve this problem and ensure proper diagnosis and advice for people from the comfort of their homes.

People have grown hesitant to approach hospitals or health centers due to the fear of contracting a disease or the heavy sum of consultation fees. (①) This leads them to self-diagnose themselves based upon unverified information sources on the Internet. (②) This often proves harmful effects on the person's mental and physical health if misdiagnosed and improper medicines are consumed. (③) Based upon the severity of the diagnosis, the chatbot prescribes over the counter treatment or escalates the diagnosis to a verified healthcare professional. (④) Interactive chatbots that have been trained on a large and wide variety of symptoms, risk factors, and treatment can handle user health queries with ease, especially in the case of COVID-19.

【문 8】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Sports fan depression is a real phenomenon that affects many *avid sports fans, especially during times of disappointment or defeat.

- (A) Fans may experience a decrease in mood, appetite, and sleep quality, as well as an increase in stress levels and a heightened risk of developing anxiety or depression. There are many factors that can contribute to sports fan depression, including personal investment in a team's success, social pressures to support a particular team, and the intense media coverage and scrutiny that often accompanies high-profile sports events.
- (B) For many fans, their emotional investment in their favorite teams or athletes can be so intense that losing or failing to meet expectations can lead to feelings of sadness, frustration, and even depression. Research has shown that sports fan depression can have a range of negative effects on both mental and physical health.
- (C) To mitigate the negative effects of sports fan depression, it's important for fans to maintain a healthy perspective on sports and remember that they are ultimately just games. Engaging in self-care activities such as exercise, spending time with loved ones, and seeking support from a mental health professional can also be helpful.

* avid 열심인

- ① (A) - (C) - (B) ② (B) - (A) - (C)
- ③ (B) - (C) - (A) ④ (C) - (B) - (A)

【문 9】Roald Dahl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가장 일치하지 않는 것은?

Roald Dahl (1916-1990) was born in Wales of Norwegian parents. He spent his childhood in England and, at age eighteen, went to work for the Shell Oil Company in Africa. When World War II broke out, he joined the Royal Air Force and became a fighter pilot. At the age of twenty-six he moved to Washington, D.C., and it was there he began to write. His first short story, which recounted his adventures in the war, was bought by *The Saturday Evening Post*, and so began a long and illustrious career. After establishing himself as a writer for adults, Roald Dahl began writing children's stories in 1960 while living in England with his family. His first stories were written as entertainment for his own children, to whom many of his books are dedicated. Roald Dahl is now considered one of the most beloved storytellers of our time.

- ① 어린 시절을 영국에서 보냈고, 18세에 아프리카에서 일했다.
- ②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는 공군에 입대하여 조종사가 되었다.
- ③ 전쟁에서 자신의 모험을 다룬 첫 번째 단편 소설을 썼다.
- ④ 성인을 위한 작가가 된 뒤 영국에서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살면서 글을 썼다.

【문10】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가장 관계 없는 문장은?

One of the most interesting discoveries in the field of new sources of sustainable energy is bio-solar energy from jellyfish. Scientists have discovered that the fluorescent protein in this animal can be used to generate solar energy in a more sustainable way than current *photovoltaic energy. How is this energy generated? ①The process involves converting the jellyfish's fluorescent protein into a solar cell that is capable of generating energy and transferring it to small devices. ②There has been constant criticism that the natural environment is being damaged by reckless solar power generation. ③The main advantage of using these living beings as a natural energy source is that they are a clean alternative that does not use fossil fuels or require the use of limited resources. ④Although this project is still currently in the trial phase, the expectation is that this source of energy will be able to be expanded and become a green alternative for powering the type of small electronic devices that are becoming more and more common.

* photovoltaic 광전기성의

【문11】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On the human level, a cow seems simple. You feed it grass, and it pays you back with milk. It's a trick whose secret is limited to cows and a few other mammals (most can't digest grass).

- (A) A cow's complexity is even greater. In particular, a cow (plus a bull) can make a new generation of baby cows. This is a simple thing on a human level, but inexpressibly complex on a microscopic level.
- (B) Seen through a microscope, though, it all gets more complicated. And the closer you look, the more complicated it gets. Milk is not a single substance, but a mixture of many. Grass is so complex that we still don't fully understand it.
- (C) You don't need to understand the details to exploit the process: it's a straightforward transformation from grass into milk, more like chemistry - or *alchemy - than biology. It is, in its way, magic, but it's rational magic that works reliably. All you need is some grass, a cow and several generations of practical knowhow.

* alchemy 연금술

- ① (B) - (A) - (C) ② (B) - (C) - (A)
- ③ (C) - (A) - (B) ④ (C) - (B) - (A)

【문12】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But here it's worth noting that more than half the workforce has little or no opportunity for remote work.

COVID-19's spread flattened the cultural and technological barriers standing in the way of remote work. One analysis of the potential for remote work to persist showed that 20 to 25 percent of workforces in advanced economies could work from home in the range of three to five days a week. (①) This is four to five times more remote work than pre-COVID-19. (②) Moreover, not all work that can be done remotely should be; for example, negotiations, brainstorming, and providing sensitive feedback are activities that may be less effective when done remotely. (③) The outlook for remote work, then, depends on the work environment, job, and the tasks at hand, so *hybrid work setups, where some work happens on-site and some remotely, are likely to persist. (④) To unlock sustainable performance and well-being in a hybrid world, the leading driver of performance and productivity should be the sense of purpose work provides to employees, not compensation.

* hybrid 혼합체

【문13】Sigmund Freud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가장 일치하지 않는 것은?

Sigmund Freud was a doctor of psychology in Vienna, Austria at the end of the nineteenth century. He treated many patients with nervous problems through his "talk cure." For this type of treatment, Freud simply let his patients talk to him about anything that was bothering them. While treating his patients, he began to realize that although there were events in a patient's past that she or he might not remember consciously, these events could affect the person's actions in her or his present life. Freud called the place where past memories were hidden the unconscious mind. Images from the unconscious mind might show up in a person's dreams or through the person's actions. Freud wrote a book about his theories about the unconscious mind and dreaming in 1899. The title of the book was "The Interpretation of Dreams"

- ①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였다.
- ② 신경 문제가 있는 환자들을 대화를 통해 치료했다.
- ③ 기억이 나지 않는 과거는 환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 ④ "꿈의 해석"이라는 책을 썼다.

【문14】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All emotions tell us something about ourselves and our situation. But sometimes we find it hard to accept what we feel. We might judge ourselves for feeling a certain way, like if we feel jealous, for example. But instead of thinking we should not feel that way, it's better to notice how we actually feel. Avoiding negative feelings or pretending we don't feel the way we do can *backfire. It's harder to move past difficult feelings and allow them to fade if we don't face them and try to understand why we feel that way. You don't have to dwell on your emotions or constantly talk about how you feel. Emotional awareness simply means recognizing, respecting, and accepting your feelings as they happen.

* backfire 역효과를 내다

- ① 부정적인 감정은 잘 조절해서 표현해야 한다.
- ② 과거의 부정적 감정은 되도록 빨리 극복해야 한다.
- ③ 감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 ④ 우리의 감정을 인식하고 존중하며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문15】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At the level of lawmaking, there is no reason why tech giants should have such an ironclad grip on technological resources and innovation.

- (A) As the Daily Wire's Matt Walsh has pointed out, for example, if you don't buy your kid a smartphone, he won't have one. There is no need to put in his hand a device that enables him to indulge his every impulse without supervision.
- (B) At the private and personal level, there's no reason why they should have control of your life, either. In policy, politics, and our personal lives, it should not be taken as "inevitable" that our data will be sold to the highest bidder, our children will be addicted to online games, and our lives will be lived in the metaverse.
- (C) As a free people, we are entitled to exert *absolute* control over which kinds of digital products we consume, and in what quantities. Most especially, parents should control what tech products go to their kids.

- ① (B) - (A) - (C) ② (B) - (C) - (A)
- ③ (C) - (A) - (B) ④ (C) - (B) - (A)

【문16】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These may appear as challenges which may be impossible to address because of the uncertainty in our ability to predict future climate.

Global warming is a reality man has to live with. (①) This is a very important issue to recognize, because, of all the parameters that affect human existence, on planet earth, it is the food security that is of paramount importance to life on earth and which is most threatened by global warming. (②) Future food security will be dependent on a combination of the stresses, both biotic and *abiotic, imposed by climate change, variability of weather within the growing season, development of **cultivars more suited to different ***ambient conditions, and, the ability to develop effective adaptation strategies which allow these cultivars to express their genetic potential under the changing climate conditions. (③) However, these challenges also provide us the opportunities to enhance our understanding of soil-plant-atmosphere interaction and how one could utilize this knowledge to enable us achieve the ultimate goal of enhanced food security across all areas of the globe. (④)

* abiotic 비생물적인 ** cultivar 품종 *** ambient 주변의

【문17】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가장 틀린 것은?

Anthropologist Paul Ekman proposed in the 1970s that humans experience six basic emotions: anger, fear, surprise, disgust, joy, and sadness. However, the exact number of emotions ① disputing, with some researchers suggesting there are only four, and others counting as many as 27. Additionally, scientists debate whether emotions are universal to all human cultures or whether we're born with them or learn them through experience. ② Despite these disagreements, emotions are clear products of activity in specific regions of the brain. The *amygdala and the insula or **insular cortex are two representative brain structures most ③ closely linked with emotions. The amygdala, a paired, almond-shaped structure deep within the brain, integrates emotions, emotional behavior, and motivation. It interprets fear, helps distinguish friends from foes, and identifies social rewards and how to attain ④ them. The insula is the source of disgust. The experience of disgust may protect you from ingesting poison or spoiled food.

* amygdala 편도체
** insula cortex 대뇌 피질

【문18】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Do you want to be a successful anchor? If so, keep this in mind. As an anchor, the individual will be called upon to communicate news and information to viewer during newscasts, special reports and other types of news programs. This will include interpreting news events, adlibbing, and communicating breaking news effectively when scripts are not available. Anchoring duties also involve gathering and writing stories. The anchor must be able to deliver scripts clearly and effectively. Strong writing skills, solid news judgement and a strong sense of visual storytelling are essential skills. This individual must be a self-starter who cultivates sources and finds new information as a regular part of job. Live reporting skills are important, as well as the ability to adlib and describe breaking news as it takes place.

- ① difficulties of producing live news
- ② qualifications to become a news anchor
- ③ the importance of the social role of journalists
- ④ the importance of forming the right public opinion

【문19】다음 글의 내용과 가장 일치하지 않는 것은?

Modern sculpture is generally considered to have begun with the work of French sculptor Auguste Rodin. Rodin, often considered a sculptural Impressionist, did not set out to rebel against artistic traditions, however, he incorporated novel ways of building his sculpture that defied classical categories and techniques. Specifically, Rodin modeled complex, turbulent, deeply pocketed surfaces into clay. While he never self-identified as an Impressionist, the vigorous, gestural modeling he employed in his works is often likened to the quick, gestural *brush strokes aiming to capture a fleeting moment that was typical of the Impressionists. Rodin's most original work departed from traditional themes of mythology and **allegory, in favor of modeling the human body with intense realism, and celebrating individual character and physicality.

* brush stroke 붓놀림
** allegory 우화, 풍자

- ① 현대 조각은 일반적으로 로댕의 작품에서 시작된 것으로 여겨진다.
- ② 로댕은 고전적인 기술을 거부하며 조각품을 만드는 새로운 방법을 통합했다.
- ③ 로댕은 자신을 인상파라고 밝히며 인상파의 전형적인 붓놀림을 보여주었다.
- ④ 로댕의 가장 독창적인 작품은 신화와 우화의 전통적인 주제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문20】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Cosmetics became so closely associated with portraiture that some photography handbooks included recipes for them. American photographers also, at times, used cosmetics to retouch negatives and prints, enlivening women's faces with traces of rouge. Some customers with dark skin requested photographs that would make them look lighter. A skin lightener advertisement that appeared in an African American newspaper in 1935 referenced this practice by promising that its product could achieve the same look produced by photographers: a lighter skin Cop free of *blemishes. By drawing attention to the face and encouraging cosmetics use, portrait photography heightened the aesthetic valuation of smooth and often light-colored skin.

* blemish (피부 등의)티

- ① side effects of excessive use of cosmetics
- ② overuse of cosmetics promoted by photographers
- ③ active use of cosmetics to make the face look better
- ④ decreased use of cosmetics due to advances in photography

【문21】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문맥 상 낱말의 쓰임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Play is something done for its own sake.” says psychiatrist Stuart Brown, author of “Play” He writes: “It’s voluntary, it’s pleasurable, it offers a sense of engagement, it takes you out of time. And the act itself is more important than the outcome.” With this definition in mind, it’s easy to recognize play’s potential benefits. Play ①nurtures relationships with oneself and others. It ②relieves stress and increases happiness. It builds feelings of empathy, creativity, and collaboration. It supports the growth of *sturdiness and grit. When children are deprived of opportunities for play, their development can be significantly ③enhanced. Play is so important that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 on Human Rights declared it a ④fundamental right of every child. Play is not **frivolous. It is not something to do after the “real work” is done. Play is the real work of childhood. Through it, children have their best chance for becoming whole, happy adults.

* sturdiness 강건함
** frivolous 경박한, 하찮은

【문22】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Lewis Pugh is a British endurance swimmer, who is best known for his long-distance swims in cold and open waters. He swims in cold places as a way to draw attention to the urgent need to protect the world’s oceans and waterways from the effects of climate change and pollution. In 2019, Pugh decided to swim in Lake Imja, which is located in the Khumbu region of Nepal, near Mount Everest. After a failed first attempt, Lewis had a *debrief to discuss the best way to swim at 5,300 meters above sea level. He is usually very aggressive when he swims because he wants to finish quickly and get out of the cold water. But this time he showed _____ and swam slowly.

* debrief 평가회의

- ① grief ② anger ③ humility ④ confidence

【문23】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가장 관계 없는 문장은?

Fast fashion is a method of producing inexpensive clothing at a rapid pace to respond to the latest fashion trends. With shopping evolving into a form of entertainment in the age of fast fashion, customers are contributing to what sustainability experts refer to as a throwaway culture. This means customers simply discard products once they are deemed useless rather than recycling or donating them. ① The consumers are generally satisfied with the quality of fast fashion brand clothing. ②As a result, these discarded items add a huge burden to the environment. ③To resolve the throwaway culture and fast fashion crisis, the concept of sustainability in fashion is brought to the spotlight. ④ Sustainable fashion involves apparel, footwear, and accessories that are produced, distributed, and utilized as sustainably as possible while taking into account

【문24】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Wrinkles are a sure sign of aging, and may also hint that bone health is on the decline. Researchers at Yale School of Medicine found that some women with deepening and worsening skin wrinkles also had lower bone density, independent of age and factors known to influence bone mass. Skin and bones share a common building-block protein, type 1 collagen, which is lost with age, says study author Dr. Lubna Pal. Wrinkles between the eyebrows - the vertical lines above the bridge of the nose - appear to be the strongest markers of *brittle bones, she says. Long-term studies are needed, but it appears the skin reflects what's happening at the level of the bone, says Pal.

* brittle 잘 부러지는

- ① 나이가 들면서 주름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② 골밀도 감소와 주름 생성의 관계에 관해서는 연구가 더 필요하다.
③ 여성이 남성보다 주름이 더 많이 생기는 이유는 골밀도 차이 때문이다.
④ 주름은 단지 피부 노화와만 연관된 것이 아니라 뼈 건강 상태와도 연관이 있다.

【문25】다음 글의 내용과 가장 일치하지 않는 것은?

Meditation can improve your quality of life thanks to its many psychological and physical benefits. Mindfulness-based interventions, such as meditation, have been shown to improve mental health, specifically in the area of stress, according to a study in the Clinical Psychology Review. When faced with a difficult or stressful moment, our bodies create cortisol, the steroid hormone responsible for regulating stress and our natural fight-or-flight response, among many other functions. Chronic stress can cause sustained and elevated levels of cortisol, which can lead to other negative effects on your health, including *cardiovascular and immune systems and gut health. Meditation, which focuses on calming the mind and regulating emotion, can help to reduce chronic stress in the body and lower the risk of its side effects.

* cardiovascular 심혈관계의

- ① Meditation benefits us both mentally and physically.
② Cortisol is released in a stressful situation.
③ Stress does not usually affect our cardiovascular systems.
④ Meditation can help lower chronic stress in the body.